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AI 인프라 투자, 미 과거 산업별 단계 뛰어넘어
- Reuters: 뉴욕 연은 총재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합리적"
- Bloomberg: 미 신규 실업청구 19만 7천 건으로 감소… 역대 최저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30년물 국채 금리 5.4% 넘어… 2004년 이후 최고치

[뉴욕시]
- Bloomberg: 뉴욕주지사, 주말 폭풍우 홍수 피해 주의 당부

[오일]
- WSJ: 브렌트유 105달러 돌파, 미·이란 갈등 격화 우려에

[미 11월 중간선거]
- JP 모건 보고서: 미 중간선거 전망 및 경제·산업 영향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연방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취재 제한에 정지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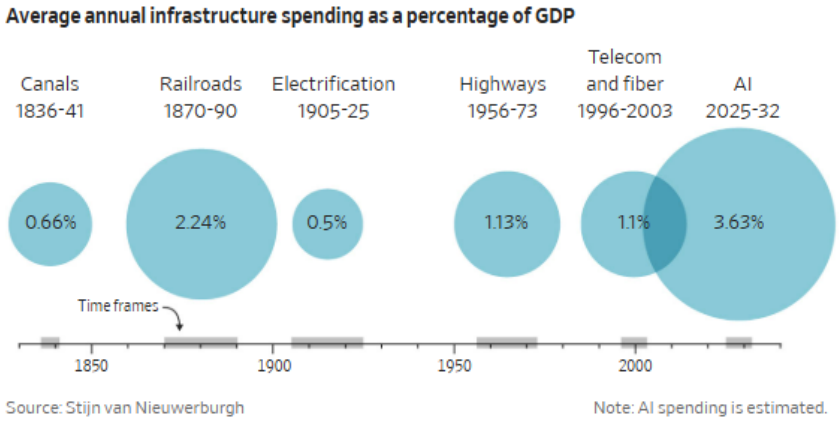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H&M, 비용 절감 성과로 이익 증가
- Bloomberg: 스타벅스, 유망 매장을 집중하기 위해 250개 매장 폐점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WSJ: The AI Build-Out Is Becoming the Biggest Economic Bet in U.S. History
AI 인프라 투자, 미 과거 산업 단계 뛰어넘어

-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및 인프라 투자가 과거 철도와 고속도로망 구축 등을 뛰어넘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로 부상하고 있다.
- 브루킹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2년까지 AI 관련 인프라 총투자액은 10조 3,00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는 연평균 미 GDP의 3.6%로, 단일 산업 구축에 미국 경제가 이처럼 많이 차지한 적은 없었다. 19세기 후반 철도 호황기 이후 최대 수준의 자금 유입이다.
- 이러한 투자는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역할을 하지만 부채 기반의 투자가 경제에 충격을 가할 수도 있다.



기사

Reuters: Fed's Williams says it is reasonable to see another US rate hike this year
뉴욕 연은 총재 "연내 추가 금리 인상 합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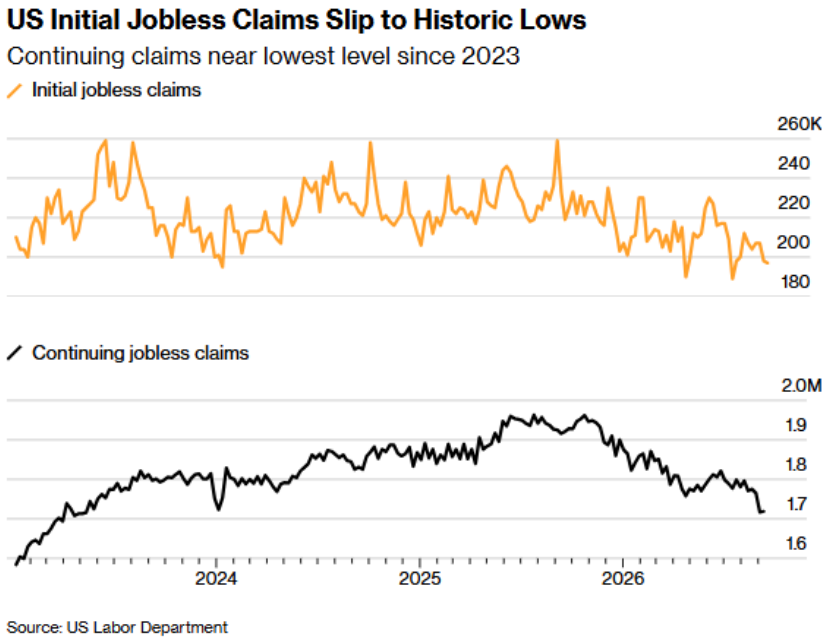
- John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는 인플레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 그는 런던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소 컨퍼런스에서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 다만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취했던 방식처럼 향후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를 신중히 수집하고 분석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 강조했다.

기사

Bloomberg: US Jobless Claims Slip to 197,000, Remain Historically Low
미 신규 실업청구 19만 7천 건으로 감소… 역대 최저

- 지난주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노동 시장이 해고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9월 19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천 건 감소한 19만 7천 건을 기록했다.
- 이는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전체 건수 역시 9월 12일 기준 1백72만 건으로 큰 변화 없이 2023년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Global Bond Rout Brings Highest US 30-Year Yield Since 2004
미 30년물 국채 금리 5.4% 넘어… 2004년 이후 최고치

- 인플레 우려와 정부 부채 부담 증가로 글로벌 채권 시장이 폭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장기물인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5.4%를 넘어섰다. 오늘 12pm 현재 5.455%
- 이 같은 국채 수익률 급등은 높은 생활비로 인한 유권자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에 심각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 한편 블룸버그 글로벌 종합 국채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정부 국채의 평균 수익률은 4% 직전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사

[뉴욕시]

Bloomberg: Hochul Warns New York Residents of Flooding From Weekend Storm
뉴욕주지사, 주말 폭풍우 홍수 피해 주의 당부

- 뉴욕주지사는 주말 동안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저지대 주민들에게 홍수 대비를 당부했다.
- 이번 폭풍은 해안 근처 바다에서 형성되어 메인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르기까지 높은 파도와 강풍 주의보, 해안 침수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 뉴욕시의 기상 악화는 금요일 밤늦게부터 토요일까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보스턴은 약 하루 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

[오일]

WSJ: Oil Prices Rebound as Brent Tops $105 a Barrel on U.S.-Iran Escalation Fears
브렌트유 105달러 돌파, 미·이란 갈등 격화 우려에

-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격화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오늘 목요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고 브렌트유가 배럴당 105달러를 돌파했다.
- 이란 최고지도자 측근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할 경우 중동 전쟁을 인도양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한편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사우디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동서 파이프라인 가동을 재개해 수출 노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사

[미중 관계]

Bloomberg: Trump and Xi Buy Time on Trade With Neither Able to Afford a Fight
미중 정상 무역전쟁에 신중…휴전 연장키로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2027년 1월 10일까지 무역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모두 정면충돌에 따른 여파에 신중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공급 약속 불이행을 비판하는 반면, 중국은 희토류 통제력으로 미 관세 재부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이번 연장은 양국 관계의 '불안정한 평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양측 모두 최선이 아닌 타협안을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기사

[미중간 선거]

JP Morgan 보고서: Top 10 Themes to Watch in the Run-up to the US Midterm Elections

미 중간선거 전망 및 경제·산업 영향

하원은 민주당 우세, 상원은 팽팽한 접전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상원은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팽팽한 백중세를 보인다.

체감 물가와 생활비가 표심 결정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지지율과 유권자 심리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이 이슈화되면서 정국 주도권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

투표율과 투표 방식의 중요성
경합 주와 득표 차가 적은 선거구에서는 조기 투표 및 우편 투표 등 투표 참여 방식과 투표율이 승패를 가른다.

경제 신뢰도는 양당 모두 비등
어느 정당도 경제 정책 면에서 확실한 신뢰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AI 수혜 기업'에 대한 대중적 반발과 선심성 공약 심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중의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AI 기술로 큰 이득을 본 대기업에 대한 반발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주별 규제 갈라치기로 통일된 AI 정책 마련 난항
각 주마다 관련 규제와 법안이 제각각 나누어져 있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포괄적인 AI 통합 정책이나 규제 마련은 어렵다.

의회 교착 상태와 행정명령 의존도 증가
의회의 입법 마비로 인해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트럼프식 강경 정책의 여파가 최고조에 달한다.

선거 이후 정책 불확실성 및 리스크 확대
선거 이후 관세 인상, 이란과의 갈등 격화, 부채한도 협상 난항 등으로 인해 정책적 변동성과 시장 리스크가 더욱 커진다.

2028년 대선 예측 지표로는 미흡

이번 선거 결과가 2028년 대선 향방을 가늠할 확실한 잣대가 되기는 어려우며, 양당 모두 유력 차기 후보군이 두텁게 포진해 있다.

기사

[트럼프 행정부]

Bloomberg: US Judge Lifts Trump's White House Media Access Ban for Now
연방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취재 제한에 정지 명령

- 미 연방법원이 CNN, MS NOW, 폴리티코 기자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 법원의 이번 임시 가처분 명령은 2주간 유지되며, 언론사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속한 서면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그러나 해당 언론사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여전히 거부당했으며, 폴리티코의 경우 소속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당했다고 전했다.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H&M Earnings Rise as Cost-Saving Push Pays Off
H&M, 비용 절감 성과로 이익 증가

-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의 4억 7천만 달러에서 5억 7천8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 수익성 개선은 강력한 비용 절감, 효율화 노력, 그리고 관세 및 수입 관련 일회성 요인에 힘입은 결과다.
- 그러나 매출의 큰 성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H&M은 Shein, Temu 등 초저가 온라인 플랫폼 및 Zara 등과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기사

Bloomberg: Starbucks Cuts 250 Locations to Back Higher-Potential Stores
스타벅스, 유망 매장을 집중하기 위해 250개 매장 폐점

- 스타벅스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매장에 중하기 위해 북미 지역의 부실 매장 250곳을 폐점한다.
- 이번 폐점 규모는 미국과 캐나다 내 1만8천개 매장의 약 1%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매출 증대를 위해 부진한 매장을 정돈하고 있으며, 고객 수요가 인근 우수 매장으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물론 장기적으로는 매장 확장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1,157.90	-354.5	-0.69%
US 500	7,668.10	-38.3	-0.50%
Dow Jones	51,150.21	-361.38	-0.70%
S&P 500	7,668.06	-38.33	-0.50%
Nasdaq	26,740.30	-195.74	-0.73%
S&P 500 VIX	16.15	+0.97	+6.39%
Dollar Index	101.05	+0.238	+0.24%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125	-8/32	5.455	0.053
10-Year Note	4.625	-26/32	5.169	0.053
7-Year Note	4.5	-2/32	5.096	0.040
5-Year Note	5	-24/32	5.041	0.038
3-Year Note	4.375	0/32	4.992	0.012
2-Year Note	4.75	0/32	4.914	0.011
1-Year Bill	0	0/32	4.441	-0.001
6-Month Bill	0	1/32	4.361	0.021
3-Month Bill	0	1/32	4.153	0.020
1-Month Bill	0	0/32	3.894	0.010

미국 USD	유럽 EUR	일본 JPY	중국 CNY	유로/달러	달러인덱스
1,366.70	1,555.99	863.44	203.66	1.1378	101.29
+11.20 (0.83%)	+4.21 (0.27%)	+2.53 (0.29%)	+1.29 (0.64%)	-0.0065 (0.57%)	+0.20 (0.19%)
9. 24. 07:55 ● 실시간	9. 24. 07:55 ● 실시간	9. 24. 07:55 ● 실시간	9. 24. 07:55 ● 실시간	9. 23.	9. 24. 11:53 ● 10분 지연

환전고시환율 | 국제시장환율

미국 USD

1
1 달러

대한민국 KRW

1,366.70
1,366.70 원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